



미 증시, 넷플릭스 호실적에도 금리 상승 등으로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24 일(수) 미국 증시는 넷플릭스 호실적에 따른 성장주 실적 기대감 확대에도, 차익실현 압력 누적 속 견고한 경제지표, 금리 상승 등으로 혼조세(다우 -0.26%, S&P500 +0.08%, 나스닥 +0.36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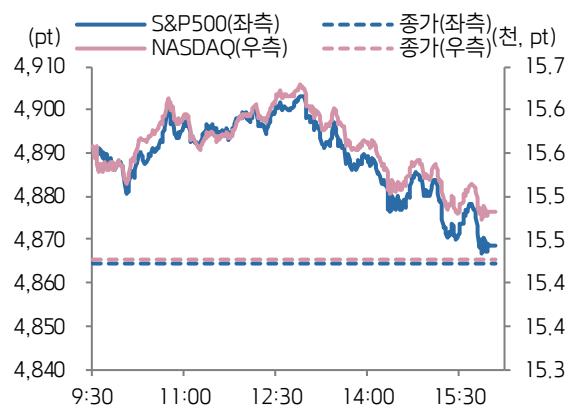
미국 1 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50.3 (예상 47.6, 전월 48.2)로 50 상회, 15 개월만에 최고치 기록. 서비스 PMI 역시 52.9(예상 51.5, 전월 51.4)로 7 개월만에 최고치를 유로존 1 월 HCOB 제조업 PMI 는 46.6(예상 44.7, 전월 44.4), 서비스업 PMI 48.4(예상 49.0, 전월 47.6)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개선.

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 높아짐. 개표가 92%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.8%, 헤일리 전 대사가 43.2%의 득표율을 기록.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‘비공식 경선’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70%가 넘는 득표로 1위를 차지.

중국 인민은행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음달 5 일부터 지준율을 현재보다 0.5%p 인하, 농업 지원 소규모 재대출과 재할인 금리를 0.25%p 인하한다고 발표. 인하 폭은 종전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크며, 시장에 1 조 위안(186 조원)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. 전날 약 430 조 원 규모에 달하는 증시안정기금 투입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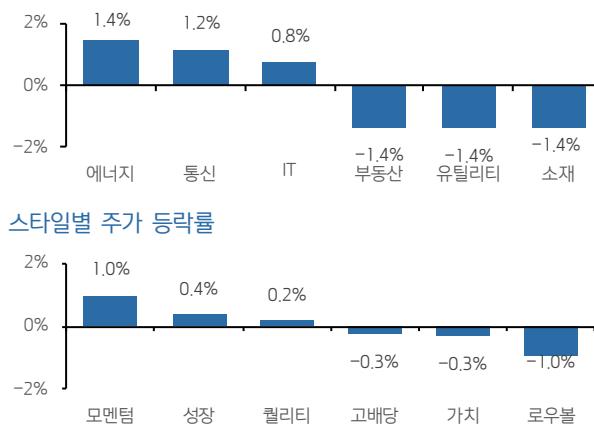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에너지(+1.4%), 통신(+1.2%), IT(+0.8%) 강세, 소재(-1.4%), 유틸리티(-1.4%), 부동산(-1.4%) 약세. 알파벳(1.13%), 아마존(0.54%), 메타(1.43%) 상승했으며, 넷플릭스(11%) 급등, 마이크로소프트(1.5%)는 장중 시총 3 조 달러 돌파. 테슬라(-0.63%)는 장마감후 발표한 실적에서 매출은 YOY 3% 증가했으나 EPS YOY 감소, 영업이익률 8.2%로 10%를 하회 하며 시간외에서 3% 대 하락. ASML 은 순매출 YOY 12.5% 증가한 호실적 및 4 분기에 전분기보다 3 배 이상 주문이 늘었다고 발표해 반도체 경기 회복과 AI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지속. 베링크 CEO 는 “반도체산업의 최종 소비자 시장 재고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”며 “강력한 4 분기 수주 현황이 미래 수요를 뒷받침한다”고 언급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69.69	-0.36%	USD/KRW	1,337.43	+0.31%
코스피 200	333.27	-0.51%	달러 지수	103.26	-0.35%
코스닥	836.21	-0.46%	EUR/USD	1.09	+0%
코스닥 150	1,280.89	-0.68%	USD/CNH	7.16	-0.01%
S&P500	4,868.55	+0.08%	USD/JPY	147.48	-0.02%
NASDAQ	15,481.92	+0.36%	채권시장		
다우	37,806.39	-0.26%	국고채 3년	3.293	+0.5bp
VIX	13.14	+4.7%	국고채 10년	3.397	+2.2bp
러셀 2000	1,961.87	-0.73%	미국 국채 2년	4.380	+1.2bp
필라. 반도체	4,483.33	+1.54%	미국 국채 10년	4.176	+4.8bp
다우 운송	15,755.42	-0.86%	미국 국채 30년	4.409	+4.6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564.11	+2.2%	WTI	75.09	+0.97%
MSCI 전세계 지수	727.44	+0.11%	브렌트유	80.46	+1.14%
MSCI DM 지수	3,190.90	+0.06%	금	2035.2	-0.49%
MSCI EM 지수	969.97	+0.6%	은	22.89	+1.9%
MSCI 한국 ETF	59.12	+0.34%	구리	388.6	+2.4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34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12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31.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 주가 변화
2. 테슬라 실적 부진이 국내 이차전지주에 미치는 영향
3. 중화권 증시 변화 및 국내 중국 관련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최근 2 거래일간 다소 소강이 된 측면이 있지만, 여타 증시에 비해 미국 증시는 지표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 낙관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. 일례로 ISM 지표에 비해 중요도나 영향력이 크지 않긴 하나, 1 월 S&P 미국 제조업 PMI 는 50.3 으로 컨센(47.2)을 상회하는데 15 개월 만에 제조업황이 크게 호전됐음을 시사. 이달 내내 Greed 영역에 있었던 대표 투자심리 지표인 CNN의 Fear & Greed index 도 25 일 기준 76pt 로 Extreme Greed 영역으로 다시 진입.

차주까지 긍정적인 경제지표나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므로, 현재 진행 중인 실적시즌이 과열권에 진입한 투자심리를 정당화 시킬지를 결정하는 재료가 될 것. 넷플릭스(+10.7%)의 호실적은 미국 증시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위기지만, 이보다는 매그니피센트 7(이하 M7) 실적이 관건. 전일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를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된 M7 의 실적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와 그에 따른 시장의 수급은 수시로 변할 것으로 예상.

전일 국내 증시는 넷플릭스 시간외 주가 급등에도, 미국 금리 상승, 3M, TI, 현대건설 등 국내외 주요 경기 민감 업종 실적 부진 등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를 자극하며 하락 마감(코스피 -0.4%, 코스닥 -0.5%).

금일에는 원/달러 환율 하락, 양호한 미국 경기 vs 미국 10 년물 금리 상승, 넷플릭스 급등 선반영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, 장중 국내 주요 기업 실적, 중화권 증시 움직임에 영향 받으면서 방향성 탐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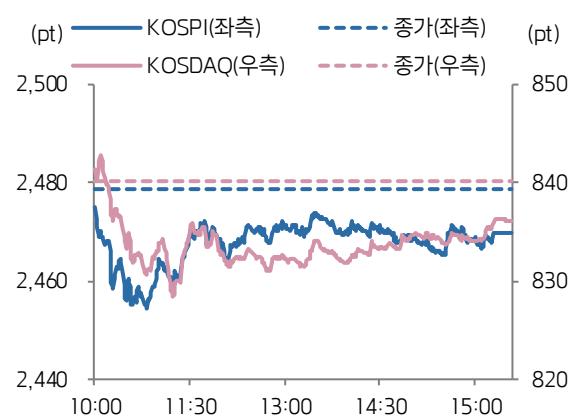
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, 이차전지, 중국 민감 업종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. 우선 4 분기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, 최악은 지나갔다는 인식 속에 반도체 관련주 흐름은 나쁘지 않았으며, 이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건 금일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 실적 결과일 것. 해당 업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+1,040억원대로 22년 4분기 -1.9조원 → '23년 1분기 -3.4 조원 → '23년 2 분기 -2.9 조원 → '23년 3 분기 -1.8 조원 이후 5 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. 다만, 연초 이후 삼성전자 등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서 이들 주가가 견고했다는 점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일정부분 선반영 됐을 가능성 존재(24 일 종가 기준, 연초 이후 코스피 -7.0%, 삼성전자 -5.7%, SK 하이닉스 0.0%).

AI 수혜 기대감도 큰 주식인데다가 이들 실적은 반도체 업종을 넘어 코스피 이익에 걸쳐 영향을 주기에, 금일 시장의 수급 변화는 반도체 및 AI 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. 이런 측면에서 1) 컨센 부합 혹은 소폭 상회 이후 해당 종목의 Sell-on 물량 출회 여부, 2)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 변화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(반도체 업종 '24 년 영업이익은 1 월 초 45.2 조원에서 현재 44.8 조원으로 하향, 코스피는 1 월초 263.8 조원에서 258.2 조원으로 하향)

또한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(EPS \$0.71, 컨센 \$0.74)을 기록함에 따라, 시간외에서 3% 전후 주가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는 점은 LG 에너지솔루션, 에코프로비엠, 엘앤에프 등 국내 2 차전지주에 부담이 될 수 있음. 그래도 이들 업종은 이미 고점대비 평균적으로 30% 넘게 하락하면서 단기 과매도 국면에 있다는 의견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, 테슬라 실적이 미치는 부정적인 주가 충격은 제한될 소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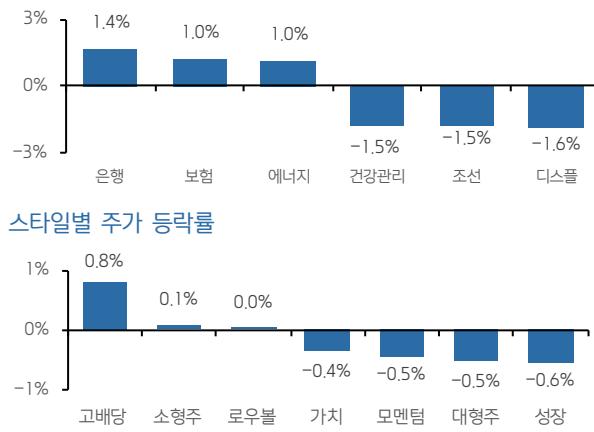
화학, 철강,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, 지난 2 거래일 동안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 기대감으로 모처럼 강세를 시현했던 상황. 이에 더해 전일 국내 장 마감 후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목적으로 지급준비율 50bp 인하를 단행. 금일 국내 증시에서 이 같은 중국발 호재성 재료가 상기 중국 관련 업종 및 아시아향 패시브 및 자산배분 펀드들의 수급 여건을 호전 시키는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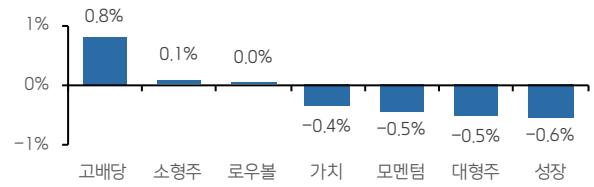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시게 됩니다.